

두산생물자원(주)

두산생물자원 단합대회 실시

두산생물자원(대표 박근효) '백두사료' 전직원은 지난 10월 9일(일) 전사 단합대회를 실시하였다. 조직의 단합과 소통의 힘으로 하반기 목표달성을 위한 장을 마련하였으며, '단합/투명/개혁/혁신'의 4개조를 결성하여 진행하였다. 뜨거운 열정과 적극적인 마인드로 '우리는 하나다'를 보여주며 전직원의 의지를 굳건히 하는 자리가 되었다.



중앙대학교 '백두사료' 공장방문

중앙대학교와 두산생물자원의 MOU체결 이후 10월 13일 중앙대학교 동물자원과학과 학생 40여명은 두산생물자원 '백두사료' 공장을 방문하였다. '백두사료'의 생산라인 및 제조과정의 현장을 다니며 공정라인을 확인하고 학습하는 시간을 보냈고 학생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두산그룹의 인재상 및 채용 Process의 설명회가 이어졌다.

두산인이 되기위한 지침과 면접에서의 Skill 습득으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며, 중앙대학교와 두산생물자원의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축산업의 선두가 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천하제일사료

‘낙농 생산성 향상 모임’ 관심 집중

- 번식성적개선과 유량증진을 위한 사양가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성공적 개최

천하제일사료(총괄사장 윤하운)는 2011년 10월 6일 이천 미란다호텔 오키드피오니홀에서 경기도와 충북 낙농 사양가를 대상으로 ‘낙농 생산성 향상 모임’을 진행하였다. 낙농산업의 전망과 방향에 대한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100여명이 넘는 많은 사양가가 참석하여 FMD로 인한 생산성 저하로 인해 고민하는 낙농가들의 뜨거운 관심을 알 수 있었다.

회의에서 천하제일사료 박정희 낙농PM은 FMD 이후 생산성 저하의 원인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의하고 2011년 4/4분기 및 2012년 조사로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 많은 농가가 낙농 전망을 파악하고, 번식성적 저하로 인한 초산우들의 비율 증가로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어 발정지연, 발정발견을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부족 방지, 밀사방지, 철저한 번식기록 관리, 발정발견을 위해 최소한 하루 30분씩 3회 이상의 관찰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2011년 10월 출시한 번식개선 신제품 소개도 이어졌다. 구입 TMR이나 자가 TMR 급여형태가 대부분인 현실에서 초임우나 약한 소들이 짧은 시간에 필요한 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기호성이 높고 번식개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처방식 제품임을 강조하였다. 이천 지역 안경철 부장의 밀크스타 신제품 및 유량증대방안에 대하여 소개도 이어졌다.

목장을 10년, 20년 운영한 낙농가에서 그 동안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지 못했던 물 급여, 흑한기 조명관리, 올바른 착유절차 등 목장에서 유량증대를 위한 노력의 중요함을 상기하며 “번식”과 “유량”은 두 마리의 토끼처럼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한 마리의 토끼같이 동시에 잡을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어 천하제일사료의 번식개선, 유량증대



낙농 생산성 향상 모임 행사 진행

를 위한 밀크스타 신제품이 앞의 노력과 함께하면 목장에서 큰 변화를 줄 것임을 주장하였다.

또한 한 마리 한 마리 유량과 사료량을 조절하던 예전과 달리 유량, 체중, BCS 등을 고려한 정밀 영양관리 급여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또한 전환기의 착유사료 급여 및 TMR에 대한 적응이 챌린지 프로그램을 통하여 최성기 때의 피크 및 수정과도 직결됨을 얘기하며 전환기의 사양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농번기로 바쁜 시간임에도 멀리는 화성과 충북 제천에서까지 참석하는 등 FMD 이후 변화된 낙농사업에 대한 관심과 변화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 할 수 있는 행사였다.

행사에 참석한 한국낙농경영인협회 부회장은 어려운 낙농 현실을 잘 극복하여 힘을 모아 2세에게도 자랑스럽고 비전있는 낙농산업으로 함께 나아가고 독려 하였다. 행사를 끝내며 이명준 영업본부장은 천하제일사료가 2012년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면서 고객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향후 50년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음을 소개하며 발표하였다. 번식과 유량이라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들이 새로운 정보나 기술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일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자리에 참석한 사양가의 의지와 관심이라면 힘든 시기를 잘 넘겨 향후 미래 낙농산업에 대한 불확실성을 노력의 결실로 바꿀 수 있음을 확신하는 뜻 깊은 행사였다.

(주)우성사료

**우성사료 제3사업본부(천안공장)
축산물HACCP 운용 우수 작업장 선정**

‘사료는 식품’, ‘원료는 재료’, ‘공장은 주방’이다
HACCP 조기 정착을 위해 필요한 것은 ‘지속적인 교육’

(주)우성사료(대표이사 지평은 부회장)의 제3사업본부(천안공장)가 최근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원장 석희진, 이하 기준원)으로부터 ‘2011년 축산물HACCP 운용 우수작업장’으로 선발됐다.

이번 선발은 최근 2~3년 간의 정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계·소비자단체·축산관련 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심사단과 심의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쳤다. 석희진 기준원 원장은 지난 4일 기준원 대강당에서 가진 시상식에서 “이번에 선발된 작업장은 타 업체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그 우수성을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 **국내 최초 하이 후레이크 사료 생산**

우성사료 내에는 3개의 사업본부가 있다. 제 1사업본부는 논산공장, 제 2사업본부는 경산공장, 제 3사업본부는 천안공장을 거점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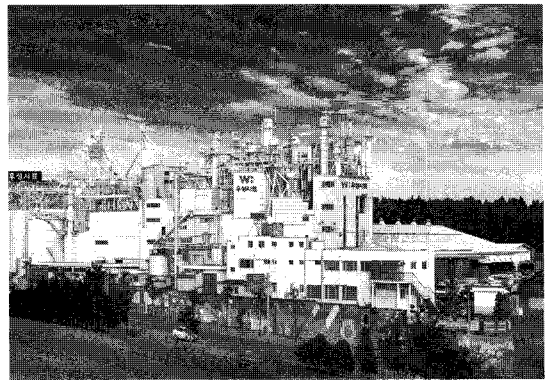
이중 천안공장은 경기, 강원, 충청 사육가들에게 신선한 사료와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981년 설립됐다. 1983년에 국내 최초로 첨단 가공사료인 하이 후레이크 사료를 생산해 한국 사료산업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 **HACCP 시스템 정착을 위한 ‘직원교육’**

배합사료공장에서 HACCP 시스템을 정착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 것이 직원들에 대한 반복 교육이다. 관련 내용을 직원들이 충분히



사진 맨 왼쪽 우성사료 김동운 이사



천안공장 전경

숙지할 때 실천의지와 책임감이 생겨나는 것이다. 천안공장은 이를 위해 매일 1일 본부장이 전체 조 회를 실시하며, 매일 분임토의를 통해 그날 확인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공유한다. 이는 작업의 능률을 한층 올리는 것은 물론 위험 발생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주)카길에그리퓨리나

FMD 재발 방지 위해 특별 방역 활동 시동

전 조직이 방역활동 강화에 총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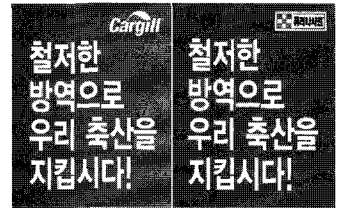
(주)카길에그리퓨리나(대표: 이보균)는 날씨가 쌀쌀해지며 질병이 기승을 부리는 환절기를 맞아,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FMD 특별 방역 기간으로 설정하여, 철저한 방역 활동에 온 힘을 쏟을 예정이다.

이번 특별 방역 활동은 작년 11월에 발생한 FMD가 국내 축산업에 미친 엄청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돌아보며, 다시는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일년을 돌아보고 준비하는 의도로 기획되었다.

이 기간 동안 전 임직원은 철저한 차단방역, 고객 농장의 철저한 백신 접종과 소독활동을 점검하

고, 현장에서 방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방역용품 공급과 함께 특별상황실 가동, 방역교육 강화 등 여러 활동을 통해 방역 활동을 실시할 것이다.

카길에그리퓨리나는 FMD 방지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지역사회로부터 여러 표창을 받았으며, 이에 만족하지 않고 업계 선두주자로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철저한 방역으로 우리 축산을 지키는 것을 앞장설 계획이다.



육우전문점 보리네 생 고깃간 안성점 오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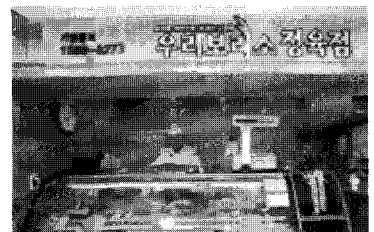
육우농가들이 모여 육우 알리는 정육 식당 오픈

2011년 10월 13일- 퓨리나사료의 대표적 브랜드 파트너 국내산 육우브랜드 '우리보리소'를 생산하고 있는 우리보리소 안성사업단(대표 손찬기) 안성시 계동에 육우 전문매장 "보리네 생 고깃간 안성점"을 오픈 하였다.

이날 개업식에는 우리보리소 안성사업단(이하 사업단) 손찬기 대표와 회원들, (주)카길에그리퓨리나의 김기용 회장과 임직원, 안성시의회 이동재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 안성시 축산과 김종수 과장과 관계자들, (주)금천F&B 임직원, 낙농육우협회 안성지회 회장 정덕훈, 낙농육우협회 육우분과위원장 최현주, 미양농협 고희경 조합장을 비롯한 농축협 관계자, 안성지역 축산관련인사 등 100여명의 귀빈이 참석했다.

이날 손찬기 사업단 대표는 "축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수한 우리 육우를

널리 홍보하여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국내산 육우 전문점 '보리네 생 고깃간'을 사육농가가 직접



육우전문점 보리네 생 고깃간 내부 사진

개업하게 되었다"고 밝히며, "육우 전문점에서 소비자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 육우 전문점에 관심이 있는 농가에는 판매 노하우를 전수하고, 사업의 성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이번 행사는 체계적인 육우사육 시스템으로 우리보리소만을 집중 사육하는 육우농가 대표들이 모여 대표브랜드 정육식당을 오픈한 모범적인 사례로, 육우를 소비자에게 올바르게 홍보하고 장기적으로 농가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 ☺